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해간다

◆ 농업정보연구소에서 ◆

공화국의 농업연구원 농업정보연구소에서 필지전지지도도를 완성하고 농업생산에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명 영농지휘지원체제로 불리우는 필지전지지도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에서 영농지휘의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지난 시기 농업부문에서는 농업토지정보체계를 리용하였다고 한다.

농업토지정보체계는 농업용토지를 전자지도화함으로써 농업의 정보화를 실현하였다는데서는 일정한 의의가 있지만 전국적인 범위에서는 리용할수 없는 제한성이 있었다.

농업정보연구소의 연구자들은 농업토지정보체계를 개발하면서 얻은 경험에 토대하여 전국적규모에서 모든 농업용토지들에 대한 전자

지도도를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자료기화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전국적인 영농지휘지원체계를 개발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와 함께 위성화상자료와 전국적인 영농공정을 장악하여 필지에 대응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영농지휘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전국의 농업부문에 일반화하였다.

이곳 연구사의 말에 의하면 영농지휘지원체계를 여러 가지 우점을 가지고있어 도입될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고 한다.

우선 전국적인 규모에서 농사작전과 지휘, 영농공정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영농지휘지원체계가 도입됨으로써 농업정보로부터 영농농장의 과학기술보급까지 자료흐름망이 구축되게 되었다.

농업성의 한 일군은 이 체계를 도입하면서부터 협동농장들에 대한 진행정형을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장악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모든 농업용토지의 기초속성자료들이 필지별로, 지목별로 자료기화됨으로써 필지별작물 및 품종배치를 과학화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기상자료와 토양자료, 기상예보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기능이 새로 첨부되어 지난 시기 생산단위들에서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상예보자료와 토양자료를 국가망을 리용하여 파

로 받아서 영농공정계획작성에 리용하던 불필요한 공정을 없애게 하였다.

하여 농업생산자들은 기상수문국의 위성화상자료와 기상자료에 기초한 영농지휘지원체계의 분석자료들을 리용하여 노력과 자재, 물자를 비롯한 영농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영농작업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토산군 양사협동농장의 송영철작업반장은 이 체계를 도입하면서 운송도는 물론이고 일조량과 지면온도, 토심온도를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볼수 있고 그에 맞게 영농작업을 진행할수 있게 되었다. 한주일의 기상예보자료도 보면서 그에 맞는 영농대책을 제때에 세울수 있다. 농사를 예견성있게 지을수 있게 되어 정말 좋다고 말하였다.

영농지휘지원체계의 또 다른 우점은 농작물생육예보와 예상수확고관정을 과학적으로 할수 있다는것이다.

영농지휘지원체계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는 원격조사기술, 위성정보분석기술, 농작물생육모의기술 등 첨단기술들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 체계를 리용하면 필지전지지도와 위성정보자료를 결합하고 농작물의 작황을 일별로 평가하고 농작물생육예보의 과학성을 높일수 있으며 농작물의 수확고를 과학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정영철 농업정보연구소 실장은 앞으로 영농지휘지원체계를 더욱 완성하여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간다고 말하였다.

악성전염병과의 싸움에서 동포애를 발휘하며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에서 ◆



① 동포들의 집집을 찾아 마스크와 소독액, 해설자료를 전달하는 총련오사까 히가시나리 지부 히가시마자도분회 분회장
 ② 가나가와현청상회에서는 쌀과 음료수를 가지고 고령동포들을 방문하였다.
 ③ 총련오사까 이누노지 지부 쓰루하시모모다니역전분회 분회장이 마스크와 해설자료를 가지고 동포들의 집집을 방문하였다.
 ④ 오사까조선가무단 단원들이 동포들을 위하여 제작한 마스크

본사기자 김 철 본사기자

다 상상 마음속에 울터나는 민들레

얼마전 저녁에 있는 일이다. 어느때였어 얼굴에 웃음을 함뻍 담은 어린 딸애가 몇장 쓰지 않은 새 《민들레》 학습장을 볼출 내미는것이였다.

《아버지, 숙제검열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내준 새 《민들레》 학습장에다 숙제를 했어요.》

《어디 좀 보자. 새 학습장에 숙제를 하니 기분이 어땠어?》

새 《민들레》 학습장을 가슴에 꼭 껴안은 어린 딸애가 방긋 웃으며 말했다.

《중요도 하얗지, 정말 좋아요.》
 기쁨에 겨워하는 딸애를

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격정의 물결이 일어났다.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아이들을 위해 친히 학습장공정건설을 맡기하시고 형성안도 세심히 지도해주시었으며 공정의 이름을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민들레학습장공정》으로 명명해주셨었다.

민들레 학습장공정에서는 온 나라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연령선리와 과목별특성에 맞는 수식종의 질좋은 학습장들을 대량 생산하고있다.

민들레!
 공화국의 들판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민들레는 봄의 정서를 안겨주는 자연의 꽃이기 전에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나서자란 고향의 모습으로 소중히 새겨진 꽃이다.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은 봄날처럼 따스해지고 고향과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이 끝없이 샘솟게 하는 민들레.

그 민들레를 항상 생각하며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가라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당부가 《민들레》 학습장마다에 어려있는것이 아니던가.

그렇다.

의 마음안고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 송고한 정성과 풍부한 지식을 결비한 싹모이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

우리 아이들이 《민들레》 학습장마다에 5점꼴을 피워갈 때 조국의 래일을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나는 딸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이렇게 말해주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을 간직하고 공부를 잘하여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알았어요, 아버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어린 딸애의 마음속에 는 고향의 민들레, 조국애가 소중히 울터나고있다.

류현철



《민들레》 학습장을 펼쳐보고 공부하는 어린이들

《최근년간 조선의 발전을 돌이켜본다》

중국의 민족부흥망에 《최근년간 조선의 발전을 돌이켜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나왔다.

글은 2015년에 미래과학자거리라는 이름이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모았는데 언론들은 이 거리를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2017년에는 려명거리가 또다시 일어났다. 면적이 미래과학거리의 2배인 려명거리는 조형면에서나 특화면에서도 세계적수준이다. 건설속도를 보면 역시 1년이라는 시간이 들었으며 조선에서는 려명거리가 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불리우고있다.》

2018년부터 조선에서는 삼지연시 건설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원림특별을 위해 삼지연시에 가문비나무, 전나무를 비롯한 키나무만도 수없이 심었다. 조선에서 삼지연시는 현대문명이 융성된 사회주의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불리

우고있으며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살림집구역과 공장, 상점들이 새로 건설되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같은 대규모건설은 절대로 속도일면에만 치우치면서 날림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지적하시고 50년, 100년후에도 손색이 없게 배 건설의 요소요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시공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019년 12월 2일 삼지연군 읍지구(당시)가 준공된지 5일만에 조선은 양덕

운천문화휴양지의 준공을 맞이하였다.

조선인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운천문화휴양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양지인 양덕운천문화휴양지를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양덕운천문화휴양지에서 낮에는 스키를 타고 저녁에는 온천욕을 하면서 휴식하던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얼마전 조선에서 순천린비로공장이 성과적으로 준공되었다. 머지않아 품지수려한 대동강변에 현대적인 평양종합병원이 일떠서게 된다.

조선은 계획적인종합체력의 약탈한 제재속에 지난 몇해사이에도 대규모의 건설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미래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은 건진 도상에 부닥치는 난관들을 과감히 뚫고나가고있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는 조선은 경제의 자립적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 머지않아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다.》

본사기자



양덕운천문화휴양지에서 (2020년 1월)

사람이 건강하여 오래 살려면 좋은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인류가 깨끗한 물을 마실때 현재 질병의 80%를 미리 막을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세계적으로 음료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있으며 질병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 건강음료개발이 추세로 되고있다. 공화국에서도 산화수, 수소수와 같이 특이한

《장수물》의 신비한 효과
 얼마전 기자는 인민들속에서 호평이 자자한 건강음료 《장수물》에 대해 더 잘 알고싶어 동대원건강음료봉사소를 찾았다. 거기에 이르니 《장수물》을 봉사받은 온 사람들이 흥성이고있었다.

그곳에서 기자는 건강음료 《장수물》을 개발한 엄철진(53살)연구사를 만났다.

《인민들에게 《장수물》을 봉사하기 시작한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장수물》이 사람들속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소화기질환과 간질환,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높아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있습니다.》

그는 《장수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평천구역과 서성구역, 형제산구역을 비롯하여 여러곳에 《장수물》봉사지점을 내오고 편의를 도모해주니 누구나 좋아한다고 하면서 한아름이나 되는 책들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장수물》을 마시고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통일신문》가 만난 사람들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건강음료 연구사
 엄철진 연구사
 《장수물》의 물맛이 달고 부드럽고 하던데...
 《그게 바로 《장수물》의 특징입니다. 《장수물》은 분자수가 대단히 작기때문에 활성이 좋고 입맛이 달큰하며 순수할뿐 아니라 산소함량이 높습니다. 여기에 미량원소, 광물질 또한 풍부하여 물맛이 좋고 체내흡수도 잘됩니다.》

엄철진 연구사는 《사람의 몸에는 물이 70~80%를 차지합니다. 물을 떠나서 생명체는 존재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생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

면서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생수에 리용되는 물을 33가지로 갈라서 식생활과 병치료에 리용해왔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옛 의학책인 《동의보감》에 기록되어있는 내용을 들려주었다.

《그 일부를 보면 첫번째는 정화수인데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다. 이 물은 하루의 새벽을 여는 하늘의 뜻이 해이 이슬이 되는때 병자의 음을 보하는 약을 달일 때에 는 꼭 이 물을 써야 한다. 두 번째는 여름에는 차고 겨울

에는 더운 한천수로서 닭을 음소리가 울리기 전에 더와야 하는데 이 물을 오래 마시면 위암을 다스린다.》

그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물을 식생활과 병치료에 리용해온것처럼 건강음료 《장수물》도 리상적인 음료수로 되고있을뿐 아니라 사람들속에 흔히 발생할수 있는 질병들을 치료하는데서 효과가 크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장수물》을 마시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을 볼때가 제일 행복하며 환절기를 웃었다.

《부모님들은 늘 말하곤 하였습니다. 의지가 지랄데 없으면 무엇이든 안아 먹여주고 입혀주고 대학공부까지 시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을 눈에 훤히 들어가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 사랑에 꼭 훌륭히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부

모님들의 뜻이자 우리 가정의 가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엄우삼의 고향은 남강원도 춘천시라고 한다. 해방전 어려서 부모를 잃은 엄우삼은 외세가 강했던 남쪽땅에서 길가의 막을 처럼 버림받다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의 등에 업혀 공화국의 품에 안겼다. 이역땅에 태를 묻은 그의 어머니 역시 일찌기 부모를 여의었다고 한다.

하나 이들은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

그런 엄철진연구사에게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전쟁로병, 특류영예군인, 교민, 과학자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수물》

을 성의껏 보장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기여하였다. 뿐만아니라 려명거리 건설장, 삼지연시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설장들에 찾아가 깨끗한 애국의 마음을 바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께서는 공민으로서 응당 할 일을 엄철진연구사의 여행을 높이 평가하시고 여러차례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여행을 온 나라에 널리 소개선전할데 대한 뜨거운 은정을 또다시 베풀어주시였다.

엄철진연구사는 세계적으로 건강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돈 많은 사람들만이 리용하는 물로 되고있고,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건강음료를 마음껏 마시며 복을 누리려는 나라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장수물》은 단순한 건강음료가 아니라 생각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무병무탈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온갖 심혈을 바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이 깃든 사랑의 물입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기자는 《장수물》을 하고 싶어 따져 물어 보았다. 그랬더니 그 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별맛이던지... 《장수물》을 마시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어려있었다.

본사기자 홍범식

본사기자